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국 어

제1차 시험	3 교시 전공 B	11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응시자 유의 사항

1. 문제지 및 답안지의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시오.
   ◇ 답안지는 2면입니다.
2. 답안지 모든 면의 상단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고,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수험 번호의 해당란을 '●'로 표기하시오.
   ◇ '●'로 표기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답안의 초안 작성은 문제지 여백을 활용하시오.
4. 각각의 문항에 대한 답안은 해당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하시오.
   ◇ 답안지에는 문항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5.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 선을 그어 답안란의 줄을 추가하거나 세로 선을 그어 답안란을 다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오.
   ◇ 단, 가로 선과 세로 선은 해당 답안란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시오.
   ◇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문항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의 것(답안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밑줄이나 기호 등)은 일절 표시하지 마시오.
   ◇ 단,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 부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9.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가짓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요구한 가짓수까지의 내용만 답안으로 작성하시오.
   ◇ 첫 번째로 작성한 내용부터 문항에서 요구한 가짓수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만 순서대로 채점합니다.
10.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오.**
    ◇ 다른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한 부분(문항 번호를 임의로 수정하는 경우, 맞바꿔 작성한 부분을 화살표로 표시하는 경우 등 포함)
    ◇ 답안란 이외의 공간(옆면, 뒷면 등)에 작성한 부분
    ◇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 테이프 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 개인 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성명 및 수험번호 기재란 제외)가 있는 답안지 전체
11.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오.
    ◇ 종료종이 울리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니다.
12. 시험 종료 전까지 답안 작성을 완료하시오.
    ◇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13.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에도 성명, 수험 번호를 기재 · 표기한 후,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시오.**
14.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답안은 채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국 어

수험 번호 : (　　)　　**성 명 : (　　)**

제1차 시험	3 교시 전공 B	11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가)는 시 수업에서 활용된 작품이고, (나)는 시 수업의 일부이다. (나)의 수업에 적용된 문학 읽기의 관점과,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 질 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江)을 보것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것네.

(나)
이 시의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아볼까요?
(학생들의 대답)
그래요. 이 시는 2연에서 보면 제삿날을 맞아 큰집을 찾아가다가 1연에서 가을에 강물이 내려다보이는 산등성이를 오르며 친구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네요. 여기에서 화자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학생들의 대답)
맞아요. 1연에서 친구의 사랑 이야기로 인해 화자는 서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2연을 볼까요? 화자는 큰집에 모이는 화려한 불빛 보다 강에 더 주목하고 있어요. 화려한 불빛과 강이 대조적 (　　)로 제시되어 1연에서 서러움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화려한 불빛보다 서러운 노을빛이 더 큰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인생의 서러움을 강이 보여 주기 때문이에요. 또한'울음이 타는 가을 강'이라는 표현에서 노을빛이 울음의 (　　)로 환치되어 화자의 서러운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3연에서는 이 서러움의 정체가 비유적 표현으로 좀 더 구체화되는데요. 이것은 인생을 산골 물소리가 바다에 이르는 보편적인 자연 현상인 강물의 흐름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삶의 희로애락이 비유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2.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작품의 특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활용하여 〈보기〉와 같이 정리 하였다. 〈보기〉의 괄호 안에 ㉠~㉢에 들어갈 말을 〈작성 방법〉을 고려하여 쓰시오. [2점]

〔전체 줄거리〕
1·4 후퇴 때 부산으로 피란을 온 원구는 비 오는 날이면 동욱 남매의 음산한 집이 회상된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원구가 방문한 동욱의 집은 비참하고 황폐한 판잣집이었다. 초상화를 그리며 겨우 생계를 해결하던 그들은 그마저도 못하게 되고, 노파에게 돈을 떼여 살던 집마저 떠나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동욱의 집을 찾은 원구는 동욱 남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격분과 자책감을 안고 돌아온다.

[㉮] 그 뒤에 원구(元求)가 처음으로 동욱(東旭)을 찾아간 것은 사십 일이나 계속된 긴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이었다. 동래(東萊) 종점에서 전차를 내리자, 동욱이가 쪽지에 그려 준 약도를 몇 번이나 펴 보며 진득진득 걷기 말짠 비탈길을 원구는 조심히 걸어 올라갔다. 비는 여전히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받기는 했으나 비가 후려치고 흙탕물이 튀고 해서 정강이 밑으로는 말이 아니었다. …(중략)…

[㉯] 동욱이가 들어 있는 집은 인가에서 뚝 떨어져 외따로이 서 있었다. 낡은 목조 건물이었다. 한 귀퉁이에 버티고 있는 두 개의 통나무 기둥이 모로 기울어지려는 집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중략〉 여기가 김동욱 군의 집이냐는 원구의 물음에, 여인은 말없이 약간 고개를 끄덕여 보였을 뿐이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태도는 거만해 보이는 것이었다. "동욱 군 어디 나갔습니까?" 하고 재차 묻는 말에도 여인은 먼저처럼 고개만 끄떡했다. …(중략)… 그러고 나서 원구를 노려보듯 하는 그 눈에는 까닭 모를 모멸과 일종의 반항적 태도까지 서려 있는 것이었다. 여인이 혹시 자기를 오해하고 있지 않나 싶어, 정원구라는 이름을 밝히고 나서, 동욱과는, 소학교에서 대학까지 동창이었다는 것과, 특히 소학 시절에는 거의 날마다 자기가 동욱이네 집에 놀러 가거나, 동욱이가 자기네 집에 놀러 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 그러는 동안 원구는 별안간 엉덩이가 척척해 들어옴을 의식했다. 바께쓰의 빗물이 넘어서 옆에 앉아 있는 원구의 자리로 흘러내린 것이었다. 원구는 젖은 양복바지의 엉덩이를 만지며 일어섰다. 그제서야 동옥도 바께쓰의 물이 넘는 줄을 안 모양이다. 그러나 동옥은 직접 일어나서 제 손으로 치우려고 하지도 않았다. 앉은 채 부엌 쪽을 향해,

오빠 물 넘어, 했을 뿐이었다. 동욱은 사잇문을 반쯤 열고 들여다보며, 이년아, 네가 좀 치지 못해? 라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러자 자기가 나서기에 절호한 기회라고 생각한 원구는, 내가 내다 버리지 하고 한 손으로 바께쓰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한 걸음도 미처 발을 옮겨 놓을 사이도 없이 바께쓰는 철그렁 하는 소리와 함께 한옆이 떨어지며 물이 좌르르 쏟아졌다. 손잡이의 한쪽 끝 갈고리가 고리 구멍에서 벗겨진 것이었다. 순식간에 방바닥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여지껏 꼼짝 않고 앉아 있던 동옥도 그제만은 냉큼 일어나 한걸음 비켜서는 것이었다. 그 순간의 동옥의 동작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원구에게 또 하나 우울의 씨를 뿌려 주는 것이었다.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동옥의 왼쪽 다리가 어린애의 손목같이 가늘고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리를 옮겨 디디는 순간, 동옥의 전신은 한쪽으로 쓰러질 듯이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동옥은 다시 한번 그 가늘고 짧은 다리를 옮겨 놓는 일 없이, 젖지 않은 구석자리에 재빨리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러고는 희다 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에 독이 오른 눈초리로 원구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것이었다. 동옥의 시선을 피하여, 탁류의 대하 가운데 떠 있는 것 같은 공포에 몸을 떨며, 원구는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허위적거리듯, 두 발로 물 괸 방바닥을 절벅거려 보는 것이었다.

-손창섭, 「비 오는 날」에서-

<보 기>

이 작품의 주제는 '극한 상황에 처한 인물의 무기력한 삶'이다. 이러한 주제는 배경과 문체로 인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첫째, ㉮에서 장마철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을 전달함으로써 허무와 절망의 주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또한 ㉯에서 공간적 배경인 (㉡)은 작품 전체의 비참한 분위기를 결정하고 주인공 남매의 삶의 (㉢)을 드러낸다.
둘째, 이 소설에 나타난 문체의 특징은 '~것이다'라는 종결어미를 활용한 간접 화법으로 제시이다. 이를 통하여 사건의 흐름에 의한 서사(줄거리 전개)보다는 그 사건에 의해 환기된 서술자의 냉소적 어조, 우울한 감정을 전달해 준다.

<작성 방법>

- ㉠은 시간적 배경의 특성에 해당하는 말을 제시할 것
- ㉡은 작품에서 찾아 쓸 것
- ㉢은 ㉯에서 동옥과 동욱 남매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제시할 것.

3. 다음 〈보기 1〉의 설명을 참고하여 〈보기 2〉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보기 1>

약속문은 그 효력이 발휘되기 위한 적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즉 청자가 그것을 원하고, 화자가 그 약속을 지킬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만 성립한다. 약속문 어미는 '-마, ㄹ게'가 있는데 '-마'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보기 2>

(1) ㄱ. 내가 영희 대신 가마.
ㄴ. *내가 영희 대신 갔으마.
ㄷ. *내가 영희 대신 가겠으마.
(2) *이제 내가 너를 때리마.
(3) *내가 이제 지치마.

<작성 방법>

- 각 예문별로 비문이 되는 이유를 서술할 것.
- 〈보기1〉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 근거를 댈 것.

4. 다음은 중세국어 관형격 조사의 특성을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관형격 조사의 특성을 서술하시오. [4점]

<자 료>

(1) ㄱ. 마ᄉᆞᆫ <u>사ᄉᆞᄆᆡ</u> 둥과 도ᄌᆞᄀᆡ 입과 눈과 遮陽ㄱ 세 쥐네도 잇더신가 (용가 88)
ㄴ. <u>부텻</u> 모미 여러가짓 相이 ᄀᆞᄌᆞ샤 (석상 6 : 41)
ㄷ. 赤島 <u>안햇</u> 움흘 至今에 보숩ᄂᆞ니 (용가 5)
(2) ㄱ. ᄒᆞᄅᆞ 二十里ᄅᆞᆯ 녀시ᄂᆞ니 <u>轉輪王이</u> 녀샤미 ᄀᆞᄐᆞ시니라 (석상 6 : 23)
ㄴ. <u>眞實ㅅ</u> 닷고ᄆᆞᆫ 欲 여희요ᄆᆞ로 本 사모ᄆᆞᆯ 爲ᄒᆞ시니 (능엄 6 : 88)

<작성 방법>

- 예문 (1)을 이용하여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 서술할 것.
- 예문 (2)를 이용하여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의 특수한 용법에 대하여 서술하되 문장의 성분에 유의하여 서술할 것.

5. 송 교사는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수·학습을 계획하였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 방법〉을 고려하여 쓰시오. [4점]

(가) 걸어서 곳 끝까지

-리베카 솔닛

내가 걷는 길은 도로와 샛길을 합쳐서 구불구불 얼추 십 킬로미터가 된다. 나는 힘들었던 십 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였다. 그 후로도 나는 자꾸 이 길로 돌아왔다. 일을 쉬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고 일을 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다. 생산 지향적 문화에서는 대개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기란 쉽지 않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하는 척하는 것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은 걷는 것이다. 인간의 의도적 행위 가운데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행이다.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생각과 경험과 도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노동이라고 할까. 수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 왔던 내가 걷기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중략…

(나) 걷기의 건강학

-박원하

걷기 운동은 생활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걷기 운동은 허리, 무릎, 발 등 관절에 무리한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노약자, 심장병 환자, 비만자에게도 좋은 운동이다. 또한 장소나 시간,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걷기 운동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 나름의 방법과 유의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운동해야 한다. …중략…

(다)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

-황진욱·김정은

걷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걷기의 긍정적 효과가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되면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도시 사업에서 빠지지 않는 연구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강 도시를 목표로 삼아 전국의 여러 도시가 앞다투어 올레길이나 둘레길 같은 산책로를 조성하고 걷기 대회를 개최하며, 걷기 좋은 경로를 소개하는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중략…

학습 목표		▣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을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학습 자료
도입 (10분)	전시 학습 확인	▣ 전시 학습 확인 • '담아 보기'에서 두 읽기 제재의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한다.	
	학습 내용 제시	〈▣ 차시 학습 내용 안내〉 • 주제 통합적 독서 방법을 안내한다.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대조하면서 읽거나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는다. –여러 가지 관점이나 형식의 글은 주제에 대한 독자의 판단 근거이자 자료가 된다. 이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되, ㉮단순히 여러 글을 비교·대조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전개 (35분)	읽은 후에 활동	활동 1 '걷기'라는 동일한 화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정리해 보자.	• 수업 PPT

	(가)	(나)	(다)
글의 분야	인문		
글의 성격		설명적	
글쓴이가 화제를 다루는 방식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걷기의 의미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활동 2

㉠

활동 3 앞의 활동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모둠별로 '걷기'에 관해 생각을 나누어 보자.

수업 내용 정리 (5분)	학습 정리 및 점검	▣ 본시 학습 정리하기 • 하나의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을 읽음으로써 주제 통합적 독서를 경험했음을 상기시킨다. • 학습 활동을 통해 다양한 관점의 글을 읽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돌아보고, 주제 통합적 읽기의 의의와 유의점에 대해 배웠음을 정리해 준다.	• 참고 자료 (hwp) – ❸ 추가 읽기 자료

점검 내용	자기 평가
㉡	상 중 하
㉢	상 중 하

	차시 예고	▣ 다음 차시 예고 및 과제 제시	

〈작성 방법〉

○ ㉮를 고려하여 ㉠의 빈 칸에 제시할 수 있는 활동 과제 1가지를 제시할 것.

○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 ㉢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점검 내용을 지식과 기능 범주로 각각 나누어 제시할 것.

6. (가)는 송 교사의 작문 평가 계획이고, (나)는 학생 글의 일부이다. 송 교사의 작문 평가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성취 기준]

○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작문의 과정과 관습을 이해한다.
○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다.

[작문 과제]

○ 작문의 관습을 고려하면서 작문의 과정에 의하여 자기소개서를 써보자.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작문 상황 분석의 결과를 글에 반영할 것.
• 자기 소개서의 작문 관습을 고려하여 글을 쓸 것.
• 통일성, 응집성 등 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어 쓸 것.

[채점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상	중	하
내용 (20점)	㉠ 생활 체험에서 얻은 경험 가운데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는가?			
	㉡ 작문 상황 분석의 결과를 글에 반영 하여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였는가?			
	㉢ 작문 상황 분석의 결과를 글에 반영 하여 자기 소개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고 있는가?			
구성 (20점)	㉣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 문단과 문단은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표현 (10점)	㉥ 자기소개서에 어울리는 문체를 사용하였는가?			
합계		점		

(나)

〈맥락 고려〉

예상 독자	글을 쓰는 목적	글의 주제
가요제 심사 위원들	심사 위원들이 교내 가요제 사회자로 자신을 뽑도록 하는 것	나는 교내 가요제 사회자로 적합한 사람이다.

[학생 글]

〈꿈을 향한 도전〉

오프라 윈프리는 노력하고 도전하는 과정 자체를 목표로 삼을 때 큰 꿈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꿈은 오프라 윈프리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토크 쇼 사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요제 사회자를 공모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소풍 전날의 아이처럼 들떴습니다. 제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기회가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가요제 사회자에 도전하는 것이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 토크 쇼 사회자라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로 삼아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요제 사회자가 되어 제 능력도 마음껏 펼치고 가요제도 멋지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의 장점 세 가지를 들어 왜 제가 가요제 사회자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진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진행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단지 말만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를 잘 보려면 말도 잘해야 하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판단을 신속하게 내립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의 추천으로 교내 토론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토론 과정에서의 토론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측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객관적 근거를 들어 정당화를 했으며, 상대측의 근거를 공박하기 위한 근거를 찾아 논리적인 공격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장점을 살린다면 가요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 (중략) … [A]

저는 그동안 훌륭한 사회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회를 맡아 진행 능력을 키웠고, 맡은 일은 무엇이든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음악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청중과 가수가 하나 되는 가요제, 활기차고 즐거운 가요제를 만들겠습니다.

<작성 방법>

○ (가)의 '성취기준'과 '작문 과제'의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을 고려하여, 〈채점 기준〉의 '평가 요소' ㉠~㉥에서 문제점을 2가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각각 서술할 것.
○ 앞에서 제시한 문제가 되는 2가지'평가 요소'에 대하여 (가) '작문 과제'의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 내용을 각각 제시할 것.
○ 학생 글 〔A〕에 나타난 문제를 (가)의 〔채점 기준〕에서 이유를 1가지 들어 서술할 것.

7. 고전 시가를 상호 텍스트적으로 비교하는 수업을 계획하였다.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德(덕)으란 곰비예 받줍고, 福(복)으란 림비예 받줍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ᄉᆞ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동동)다리.

二月(이월)ㅅ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등)人블 다호라.
萬人(만인) 비취실 즈ᅀᅵ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삼월) 나며 開(개)ᄒᆞᆫ 아으 滿春(만춘) 둘욋고지여.
ᄂᆞᄆᆡ 브롤 즈슬 디뎌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사월) 아니 니저 아으 오실셔 곳고리새여.
므슴다 錄事(녹사)니믄 녯 나ᄅᆞᆯ 닛고신뎌.
　아으 動動다리.

六月(유월)ㅅ 보로매 아으 별해 ᄇᆞ룐 빗 다호라.
도라보실 니믈 젹곰 좃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十月(시월)애 아으 져미연 ᄇᆞᄅᆞᆺ 다호라.
것거 ᄇᆞ리신 後(후)에 디니실 ᄒᆞᆫ 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다리.

-「동동」에서-

(나)
일년지계(一年之計) 재춘(在春)ᄒᆞ니 범사(凡事)를 미리 ᄒᆞ라.
봄에 만일 실시(失時)ᄒᆞ면 종년(終年) 일이 낭패되네.
농지(農地)를 다스리고 농우(農牛)를 살펴 먹여,
지거름 지와 노코 일변(一邊)으로 시러 ᄂᆡ여,
맥전(麥田)의 오좀듀기 세전(歲前)보다 힘써 ᄒᆞ소.
늙으니 근력(筋力) 업고 힘든 일은 못 ᄒᆞ야도,
낫이면 이영 녁고 밤의는 ᄉᆡ기 ᄯᅩ아,
ᄡᅧ 맛쳐 집 니우니 큰 근심 더럿도다.
실과(實果) 나모 벗꼿 짜고 가지 ᄉᆞ이 돌 씨오기
정조(正朝)날 미명시(未明時)의 시험(試驗)죠로 ᄒᆞ야 보소.
며나리 닛디 말고 송국주(松菊酒) 밋ᄒᆞ여라.
삼춘(三春) 백화시(百花時)의 화전 일취(花煎一醉) ᄒᆞ야 보ᄌᆞ.

사월이라 초여름 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비온 끝에 볕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떡갈잎 퍼질 때에 뻐꾹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패어 나니 꾀꼬리 노래 한다
농사도 한창이요 누에치기 한창이라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
적막한 사립문을 녹음(綠陰) 속에 닫았도다
목화를 많이 가꾸소 길쌈의 근본이라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룩을 적게하소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하소
물 댄 논을 써레질하고 이른모를 내어보세

-정학유,「농가월령가」중에서-

<작성 방법>

- ○ (가)와 (나)의 공통점을 형식적 측면을 고려하여 서술할 것.
- ○ (가)와 (나)의 차이점을 (가)는 화자의 정서를 포함하고, (나)는 창작 의도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8.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

〈앞부분 줄거리〉
주생은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났지만, 과거에 실패하고 장삿길로 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그는 우연히 어렸을 때 친구로 지금은 기생이 된 배도를 만나게 된다. 어느 날, 노 승상 댁의 딸 선화를 본 뒤부터 주생의 마음은 선화에게 옮겨 간다.

주생은 한번 선화를 본 후부터는 배도를 향한 마음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배도와 술잔을 주고받는 사이에도 애써 웃고 기뻐할 뿐, 마음은 온통 선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루는 승상 부인이 아들 국영을 불러 놓고 말했다.
"네 나이가 열두 살인데도 아직 글을 배우지 않고 있으니, 훗날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자립할 수 있겠느냐? 배 낭자의 남편인 주생은 학문이 뛰어난 선비라고 들었다. 네가 가서 그에게 배움을 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중략)…

[A]
이때부터 주생은 승상의 집으로 옮겨가 더부살이를 했다. 그러나 낮에는 국영과 함께 생활을 하고, 밤이 되더라도 문빗장이 굳게 잠기어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주생은 10여 일이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자신에게 일렀다.
'처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본래 선화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이제 향기로운 봄도 이미 끝나 버렸는데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겠는가? 차라리 당돌하게 담을 넘어 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일이 이루어지면 귀하게 될 것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을 받아 죽으면 그만이다.'
마침 그날 밤 달이 뜨지 않았다. 주생은 몇 겹으로 된 담을 넘어 비로소 선화의 처소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굽이진 기둥과 돌아드는 복도마다 주렴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다. 주생은 한참 동안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인적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다만 주렴 뒤에서 선화가 촛불을 밝히고 악곡(樂曲)을 타고 있었다. 주생은 기둥 사이에 엎드려 선화가 타는 악곡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선화는 악곡을 다 연주하고 나서 작은 소리로 소자첨의 〈하신랑(賀新郎)〉이라는 사곡(詞曲)을 읊었다.

주렴 밖에 누가 와서 비단 창을 두드리는고?
안타깝게도 요대에서 노니는 꿈 깨뜨리네.
아아, 대밭을 스치는 바람이런가.

〈뒷부분 줄거리〉
마침내 두 사람은 사랑을 이어간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안 배도는 주생의 배신에 괴로워하다 병들어 눕게 된다. 국영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주생과 선화는 만날 길이 없어져 서로 상사병에 시달린다. 배도는 비극적 사랑의 슬픔을 간직한 채 죽는다. 사랑을 모두 잃은 주생은 외가의 장씨를 찾아간다. 그간의 사연을 안 장씨가 노 승상 댁에 사람을 보내, 주생과 선화의 혼인을 주선한다.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조선(朝鮮)이 왜적(倭敵)의 침략을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떠돌았다. 마침내 원병을 중국에까지 청해 왔다. 사태는 매우 급박했다. 황제는 조선이 지극히 중국을 섬기므로 불가불 구원을 해야 했고, 또 조선이 무너지면 압록강 서부 지방은 편안할 날이 없을 것임을 갈파했다. 항차 왕업의 존망계절(存亡繼絶)이 달린 판국이어서 거절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도독(都督) 이여송(李如松)에게 군대를 통솔하여 적을 무찌르도록 어명이 내렸다.
이때 행인사의 행인 설번이 조선을 다녀와서 황제에게 아뢰었다.
"북방 사람은 오랑캐를 잘 막아 내며 남방의 사람들은 왜놈을 잘 방어하오니, 이 싸움은 남방의 군병이 아니면 어렵겠나이다."
이래서 호절의 여러 고을에서 병정을 급히 모집하게 되었다. 그때 유격장군이었던 어떤 사람이 평소에 주생의 성명을 알고 있어, 출전하는 날에 끌어내어 서기의 소임을 맡겼다. 주생은 굳이 사양했으나 어쩔 수 없어 직책을 맡았다. 그는 조선으로 나왔다. 안주의 백상루에 올라 고풍 칠언시를 지었다. 그 전부는 알 수 없으나, 그 결구는 다음과 같았다.

[B]
시름에 겨워 강 상루에 오르니,
누 밖에 청산은 첩첩이 싸였구나.
저 산은 고향을 바라보는 내 눈을 가리면서,
어찌하여 시름이 오는 길은 막지 못하나.

이듬해 계사년(癸巳年) 봄이었다. 명군은 왜적을 대파하여 경상도로 몰아붙였다.
주생은 밤낮으로 선화를 생각하여 마침내 병이 중해졌다. 그는 종군해 남하할 수 없어 송경(松京)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 나는 때마침 일이 있어 송경에 갔었다. 한 여관에서 주생을 만났다. 그러나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글로써 의사를 통했다. 주생은 내가 글을 안다고 후하게 대접해 주었다. 나는 주생에게 병든 내력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근심에 싸여 응답이 없었다.
하루는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나는 주생과 같이 불을 밝히고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생은 '답사행'의 사 한 수를 지어 보여 주었다.

[C]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신세, 이별의 회포(懷抱)를 어이 다 쏟을까.
돌아가는 기러기는 어두운 강가 나무에 줄지어 앉았구나.
여창의 희미한 촛불은 이 마음 설레게 하고,
황혼의 빗소리는 시름을 더하누나.
낭원은 구름에 싸였고, 영주는 바다에 막혔구나.
임 있는 곳은 예서 얼마나 되나.
차라리 물 위의 부평초 되어
하룻밤 흘러 흘러 오강으로 가고자.

나는 몇 번이나 이 사를 읊었다. 그리고 사 중의 정사를 탐문했다. 주생은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일체 말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시사(詩詞)를 아름답게 보았다. 그리고 이들의 기우(奇遇)를 한탄했고, 좋은 시일을 놓친 데 대하여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헤어진 후, 나는 붓을 잡아 이를 써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주생전」에서-

<보 기>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인물이 만남을 이루는 과정에 등장하는 각종 소재를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면 감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두 인물 사이에 일정한 경계선을 긋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인물들이 이를 넘어서기 위해 갈등을 하기도 하고 시련을 겪게도 함으로써 독자들이 그 만남의 기쁨에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작성 방법>

○ 〈보기〉를 고려하여 〔A〕에서 소재를 찾아 제시하고, 이들 소재의 공통적인 의미와 기능을 서술할 것.

소재	⇨	의미와 기능
㉠		㉡

○ 〔B〕와 〔C〕에서 삽입된 시에서 화자의 정서를 제시하고 삽입시의 공통적인 기능을 서술할 것.

9. 다음은 "한국 문화의 가치가 담긴 작품을 읽고,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작품들이고, 〈보기〉는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의 교수·학습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중모리]

집이라고 돌아오니 부엌은 적막허고 방 안은 텡텡 비었는디 심 봉사 실성 발광(失性發狂) 미치는디 얼사 덜사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며 지팽 막대 흩어 짚고 이웃집을 찾어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혹 우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허허 내가 미쳤구나. 방으로 들어 통곡 *자탄헐 제 그때에 귀덕 어미 아해 안고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이 아해로 보더라도 그만 진정허시오. 거 귀덕 어민가. 이리 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젖 좀 주소. 귀덕 어미는 건너가고 아이 안고 *자탄헐 제 원촌(遠村)에 닭이 울고 찬바람은 스르르 어린 아해 놀래 깨어 젖 달라고 슬피 운다. 심 봉사 기가 막혀 우지 마라 내 자식아 너이 모친 먼 데 갔다. 낙양 동촌 이화정(洛陽東村梨花亭)에 *숙 낭자(淑娘子)를 보러 갔다. *죽상지루(竹上之淚) 오신 부인 이비(二妃) 부인을 보러 갔다. 가는 날은 있다마는 오마는 날은 모르겄다. 너도 너의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우느냐 *강목수생(剛木水生)이지야 내가 젖을 두고 안 주느냐 아무리 달래어도 어린 아해는 그저 우짖듯이 응아 응아 응아 심 봉사 화가 일어나 안었던 아해를 방바닥에다 *미다치며 죽어라 썩 죽어라 니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초칠(初七) 안에 어미를 잡아먹어야. 너 죽어도 나 못 살고 나 죽어도 네 못 살리라. 아해를 도로 안고 우지 마라 이 자식아 어서 어서 날이 새면 젖을 얻어 먹여 주마 우지 마라 내 새끼야.

[아니리]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허고 눈물로 날을 새었것다.

[잦은몰이]

[A] 우물가 두리박 소리 얼른 듣고 나설 제 한 품에 아해를 안고 한 품에 지팽이 흩어 짚고 더듬더듬 우물가에 찾어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초칠 안에 어미 잃고 *기허(氣虛)하여 죽게 되니 이 애 젖 좀 먹여 주오. 우물가에 오신 부인 철석(鐵石)인들 아니 주며 *도척인들 아니 주랴 젖을 많이 먹여 주며, 한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댁에도 아해가 있고 저 집에도 아해가 있으니 자조자조 다니시면 내 자식 못 먹인들 차마 그 애를 굶기리까. 심 봉사 좋아라고, 허허 감사하고 수복강녕허옵소서.

이 집 저 집 다닐 적에 삼베 *질삼 허노라고 히히하하 웃음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오나 이 애 젖 좀 먹여 주오. 오뉴월 뙤약볕에 김매고 쉬는 부인 더듬더듬 찾어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이애 젖 좀 먹여 주오.

젖 있는 부인들은 젖을 많이 먹여 주고 젖 없난 부인들은 돈돈씩 채워 주고 돈 없난 부인들은 쌀되씩 떠 주며, 암쌀이나 하여 주오. 심 봉사 좋아라고, 허허 감사허오 만수무강하옵소서. 젖을 많이 얻어 먹여 집으로 돌아올 제 어덕 밑에 수그려 앉어 아히를 어른다. 허허 이 자식이 배가 빵빵허구나.

…(중략)…

[잦은몰이]

심 황후 기가 막혀 산호 *주렴 거처 버리고 보선발로 우루루루 부친으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심 봉사 깜짝 놀래 아니 뉘가 날다려 아버지여.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독녀 내 딸 청이 물으 빠져 죽은 지가 우금 수삼 년이 되었는디 누가 날다려 아버지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임당수 깊은 물에 빠져 죽은 청이가 살어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뜨셔 저를 급히 보옵소서.

심 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에이 아니 청이라니 청이라니 이것이 웬일이냐 내가 지금 죽어 수궁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죽고 없는 내 딸 청이 이곳이 어데라고 살어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하여라. 어디 어디 어디 내 딸 좀 보자. 두 눈을 끔적 끔적 끔적허더니 부처님의 도술로 두 눈을 번쩍 떴구나.

[B]

[아니리]

심 봉사 눈 뜬 *훈짐에 모도 따라서 눈을 뜨는디,

[잦은몰이]

*만좌 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淳昌) 담양(潭陽) 새갈모 떼는 소리라. 짝 짝 짝 허드니 모도 눈을 떠 버리는구나. 석 달 동안 큰 잔치으 먼저 와서 참예허고 나려간 맹인들도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헌 맹인 중로에서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어 뜨고 실없이 뜨고 어이없이 뜨고 화내 다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떠 보느라고 뜨고 시원이 뜨고 일허다 뜨고 눈을 비벼 보다 뜨고

*지어비금주수(至於飛禽走獸)라도 눈먼 짐생까지도 모도 다 눈을떠서 광명 천지가 되었구나.

-「심청가」 중에서-

*자탄헐 자기의 일에 대하여 탄식할.
*숙낭자 '숙향전'의 등장인물인 '숙향'을 말함. 난리를 만나 낙양 동촌 이화정에서 자수를 놓으며 지냈음.
*죽상지루 대나무 위의 눈물. 순임금이 죽자 두 부인인 아황과 여영이 쫓아와 슬피 울다 죽었는데, 그 피눈물이 소상강 가의 대나무에 묻어 소상 반죽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음.
*강목수생 마른나무에서 물이 난다는 뜻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무엇을 내라고 요구함을 이르는 말.
*미다치며 메다치며. 어깨 너머로 둘러메어 힘껏 내리치며.
*기허(氣虛)하여 기력이 허약하여.
*도척(盜跖) ① 중국 춘추 시대의 큰 도적. ② 몹시 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질삼 '길쌈'의 옛말. 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주렴(珠簾) 구슬 따위를 꿰어 만든 발.
*훈짐 훈김.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
*만좌(滿座) 여러 사람이 가득하게 늘어앉은 자리.
*지어비금주수 날짐승과 길짐승에 이르기까지.

(나)

〈전체 줄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나'는 임시 반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최기표와 재수파에게 린치를 당한다. 얼마 후 가정 방문을 온 담임 선생님은 '나'가 계속 반장을 맡아 주기를 바라지만 '나'는 친한 친구인 형우를 추천한다. 그 후, 반장이 된 형우는 시험 날 모범생들과 짜고 기표에게 답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 원치 않는 도움에 기분이 나빠진 기표는 재수파들을 불러 형우를 때린다. 하지만 형우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도 기표를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의리의 사도로 부각시킨다.

[C]

형우는 기표네 가정 사정을 낱낱이 얘기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신화적 존재로 군림해 온 기표의 허상을 빈곤이라는 그 역겨운 것의 한 자락에 붙들어 맨 다음 벌거벗기려 하는 것 같았다. 기표는 판잣집 그 냄새 나는 어둑한 방에서 라면 가락을 허겁지겁 건져 먹는 한 마리 동정받아 마땅한 벌레로 변신되어 나타났다.

"한 가지 또 알려 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의 친구를 위해서 이제까지 남이 모르게 도와 온 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표의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재수파라고 불러 온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가난을 우정으로써 구원하려 한 그들이야말로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협동과 봉사 기여 정신의 산증인들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학교에 싸 가지고 온 도시락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배고파 보지 못한 우리들의 우매함이었습니다. 남의 찬 도시락을 훔쳐 먹어야 했던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는 반장으로서 그 사실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과하는 뜻에서 나는 오늘이라도 우리의 친구 기표를 돕는 일에 앞장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깊은 감동의 강물이 모두의 가슴 한가운데를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담임 선생이 교단으로 다가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교탁 위에 놓았다. 반장도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이들이 조용한 술렁거림 속에서 모두 돈을 찾아 들었다.

"오늘 돈이 없는 사람은 내일 가져오는 게 어떻습니까?"

한 아이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제안하자 모두, 그럽시다 — 소리쳤다.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모 일간지 편집부 국장을 지내는 학부형이 우리 반에 있었다. 담임 선생님과 반장이 그 학부형을 만나러 갔다. 그 신문사 기자가 학교에도 여러 번 다녀갔다.

며칠 뒤에 신문 미담란에 우리 반 얘기가 크게 다뤄졌다. 박스 기사였다. 기표의 갸륵한 효성에서부터 재수파들의 우정 어린 피 뽑기와 급우들로부터 시작된 친구 돕기 운동이 전교적으로 파급되어 이룩한 성과가 자세하게 났다. 기표의 여동생 얘기도 끼어 있어 그 기사를 읽은 우리들의 콧등이 새삼 찡했다. 기사 맨 위에 담임 선생님과 반장, 그리고 기표의 사진이 박혀 있었다. 교장 선생님 지시에 의해 그 기사는 각 교실 후편 게시판에 붙이게 돼 있었다.

그 신문 기사가 나가고부터 월요 조회 때마다 교장 선생님은 사회 각계에서 보내오는 성금과 위문편지를 최기표에게 전달했다.
이제 아이들은 아무도 기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형이라고 호칭하는 아이도 드물었다. 아무나 곁에 가서 말을 걸 수가 있었고 때로는 어깨도 쳤다.
그것은 기표가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타는 아이로 변해 버렸기 때문이다. 누구를 만나도 수줍어하는 그 아이는 그렇게 당당하던 체구마저도 왜소하게 짜부라진 채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을 적에 '치즈' 하고 웃듯 그런 미소를 얼굴에 담고 있었다.

[D] 우리는 그렇게 미소 짓는 기표의 얼굴을 보면서 일사불란한 항해를 계속했다. 담임은 더욱 깊은 이해로써 우리 반을 돌봐 주었다. 반장 형우는 그 나름의 성실과 지혜로 '우리'를 위해 헌신했다. 우리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기표의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우리들은 덩달아 들떠서 술렁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기표의 자리가 빈 것을 알았다. 다음날도 그는 결석했다. 무단결석이었다.
담임이 의자에 소리 나게 주저앉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 망할 새끼가 끝까지 말썽이란 말이야."
그는 담배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가 내뿜으며 투덜거렸다.

"내일 천일 영화사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잖냐? 그런데 이 망할 새끼가……."
그는 서랍에서 편지 하나를 꺼내 우리들 앞에 내던졌다. 기표가 바로 밑의 여동생한테 보낸 편지였다. 편지 맨 앞줄에 이렇게 씌어 있었다.
— 무섭다. 나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전상국, 「우상의 눈물」 에서-

활동과제
활동 1 (가) [A]의 '젖동냥' 대목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1) [A]의 '젖동냥'을 하러 다니는 심 봉사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말해 보자. [예시답안] 현재의 힘든 처지 때문에 생긴 슬픔과 고통,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 품속의 어린 생명을 잘 키우겠다는 의지 등이 뒤섞여 매우 복잡했을 것이다. (2) 젖동냥 대목에서 어떠한 선인들의 정신이 나타나 있는지 말해보자.
활동 2 (가) [B]의 '눈 뜨는 대목'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이 작품의 마지막 '눈 뜨는 대목'에 담겨 있는 선인들의 정신을 무엇인지 말해보자.
활동 3 (나)에서 담임 선생님과 형우의 행동이 기표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C]와 [D]에서 담임 선생님과 형우의 행동이 기표를 위한 것이었는지 판단해 보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보자.
활동 4 (가)에 나타난 공동체적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서 필요한 공동체적 정신에 대해 알아보자.

<작성 방법>

○ 〈보기〉에 제시된 '학습 활동 1~3'의 모범인 답을 각각 서술할 것.

10. 다음 예들은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 조사의 쓰임을 보여준다. 각 예문에 드러난 중세국어만의 특징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자 료>

(1) ㄱ. 사ᄉᆞ미 둥과 도ᄌᆞᄀᆡ 입과 눈 (용가 88)
ㄴ. 徐卿의 두 아ᄃᆞ리 (두언 8:24)
ㄷ. 부텻 모미 여러가짓 相이 ᄀᆞᄌᆞ샤 (석상 6:41)
ㄹ. 나랏 말ᄊᆞ미 中國에 달아 (훈언)
(2) ㄱ. 이 東山은 須達이 산 거시오 (석상 6:40)
ㄴ. 내ᄋᆡ 어미 爲ᄒᆞ야 發ᄒᆞᆫ 廣大誓願을 드르쇼셔 (월석 21:57)
ㄷ. 네의 어미 그려호미 샹녯 ᄠᅳ뎃 衆生애셔 培ᄒᆞᆯᄊᆡ (월석 21:22)
(3) ㄱ. 齒頭와 正齒왜 ᄀᆞᆯᄒᆡ요미 잇ᄂᆞ니 (훈언 14)
ㄴ. 六塵과 六根과 六識과를 모도아 (석상 13:39)

<작성 방법>

○ (1)의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난 중세국어 관형격조사의 특징을 서술할 것.
○ (2)ㄱ의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난 관형격조사의 특징을 현대국어와 비교하고, (2)ㄴ,ㄷ의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나는 특이점을 서술할 것.
○ (3)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 조사의 특성을 서술할 것.

11. 다음은 동격 관형사절의 특성을 보여주는 예문들이다. 그 특성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자 료>

(1) ㄱ. {그를 사랑했던/*그를 사랑했다는} 기억이 없다.
ㄴ. {*그를 사랑한/그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었다.
ㄷ. {그를 사랑한다는/그를 사랑한} 사실이 학교에 알려졌다.

(2) ㄱ. 그는 세계 대회에 여러 차례 {출전한/*출전한다는} 바 있다.
ㄴ. 그가 나를 {속일/*속인다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ㄷ.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기다린다는} 수밖에 없다.

<작성 방법>

○ (1)의 예문의 특징을 관계 관형사절과 비교하여 서술하되, 안긴 절 안 성분의 생략 현상과 관형사절의 생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할 것.
○ 긴 동격 관형사절과 짧은 동격 관형사절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1),(2)예문에서 드러나는 동격명사의 특성을 설명할 것.

<수고하셨습니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